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몇 년 전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 그림 한 점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한국화(동양화)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서양 물감을 사용한 유화였다.

전통적인 수묵화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를 서양화라 해야 하나 동양화라 해야 하나? 그나저나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누구일까? 낙관을 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남농(南農) 허근 화백의 제자 전정(田丁) 박항환(67)이었다.

진도 출신인 그는 21세 때 국전에 입선한 이후 4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려 왔다. 먹과 한지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수묵화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개성 강한 자기만의 예술양식을 완성해 냈다는 평을 듣는다.

그동안 작가로서의 명성도 얻을 만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파격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동양의 전통 재료인 수묵담채와 서양의 현대 재료인 아크릴을 혼합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과 창신(創新)이라는 대립적인 가치의 절묘한 조화이라 하겠다. 예술가들은 그렇게 새로움을 추구한다. 다름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한다.

‘불타는 비엔날레 현장’을 그대 보았는가

‘다름’과 ‘새로움’의 극치가 모여 있는 곳이 아마도 비엔날레가 아닌가 싶다. 비엔날레에 가면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날 수 있다. 다소 엉뚱하고 다소 생소하기도 하며 그래서 난해한가 하면 때로는 기발한 작품들이 거기 모여 있다.

광주비엔날레 제3전시실의 끝자락. 실내는 텅 비어 있다. 벽에 뚫린 조그마한 창 하나가 보일 뿐. 그대도 어딘가에 작품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야 일반인들도 짐작할 수 있다. ‘비엔날레 20년’의 세월이 관람객들의 수준을 그만큼 높여 놓았을 것이기에.

느껴라, 작품이 별것이더냐

놀랍게도 작품은 바로 벽에 뚫린 평범한 창문이었다. 건너편 아파트의 창문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는데 전시실 건물의 벽을 일부러 부수고 새롭게 짜 넣었다 한다. 장박으로는 실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보이는 아파트까지 작품인 셈이다.

도스트(전문 안내원)는 “한국 사회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을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엔날레가 끝나면 이번엔 일부러 뚫어 놓은 그 창문을

다시 막을지 여부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렇다고 비엔날레에 이런 어려운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문어 한 마리가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파사드(건축물의 정면)에 그려진 ‘트롬프뢰유’ 즉 ‘눈속임 그림’이다. (건물 외벽에 그려졌으니 이번 전시에서 누구나 공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일 것이다.)

문어 대가리에서 전직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문어가 건물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 같은 물리적 장소에 반대에 온 미술운동의 역사를 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욕심일 뿐. 우리 그저 작품을 보면서 각자 나만의 느낌을 갖는 것으로 족하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뜻밖에도 80년대 미국 팝송 제목에서 따온 ‘터전을 불태우라’이다. 마침 전시장에 들어서서 만난 첫 작품이 ‘불타는 창문’이었다. 방 안은 온통 캄캄한 어둠인데 한쪽 벽면에 끼워 넣은 창문 안에서 붉은 색 빛이 깜박인다. 마치 집이 불타는 것 같기도 하고 장박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 같기도 하다. 작품을 보면서 불타는 지옥을 연상하든, 아름다운 벽난로의 따뜻함을 느끼든, 상관없다. 그것은 관람객의 자

유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작품도 있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8점의 ‘이불 시리즈’. 이 작품은 우리의 전통 속담인 ‘수박 겉 핥기’, ‘땀 짙고 해업치기’, ‘누워서 떡 먹기’ 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관람객들로서는 그림을 보면서 속담을 알아맞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누려라, 험값의 ‘문화적 허영’

‘일곱 개의 미단미론’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할 것 같다. 좌우로 열리는 자동 문에 거울이 부착돼 있어 관람객들이 걸어가 는 모습을 계속해서 비춘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끝없는 통로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작품의 주체가 된다.

중국 작가의 ‘쓸모없는’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흥미롭다. 작가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지금은 아무 필요 없게 된 물건들을 가져 오도록 했다. 소파·접시·냄비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 작품이 되었다.

그 중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커플링 반지’가 눈에 띈다. 한때는 불타는 사랑을 했을지

도 모르는 그들은 왜 소중한 반지를 버린 것일까. 사랑은 유한하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누군가 유치하다 할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은 관람객의 자유’ 아닌가.

불타는 것은 단풍만이 아니었다. ‘불타는 비엔날레’ 현장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돌아보았다. 예술은 ‘다름’이요 ‘새로움’이요 ‘연민’이라는 사실을 이번 전시에서도 확인한다. 현대미술 역사 시(詩)가 그러하듯이 상징과 비유를 먹고 산다는 사실도 알겠다.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광주비엔날레도 막을 내린다. 일상의 삶이 팍팍할수록 더 늦기 전에 가 보자. 1만4000원(입장료)의 험값(?)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 허영’을 왜 마다하는가.

아, 이것만은 꼭 봐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그만 나오고 말았네.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진’. 그 중에서도 독일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여인’은 사진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전장(戰場)에서 잃었던 어머니로서의 콜비츠를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다.)

광주서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협의회’ 출범

국내 전문가 118명 산업화 모색... 전남대 연구소 오늘 포럼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광주에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협의회’를 출범한다. 그동안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별 진행하던 원전연구를 넘어 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센터장·박중오 전남대 교수)와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는 31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협의회’ 출범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42개 관련 기업 대표와 전문 의료진 19명, 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 그룹 54명 등 총 118명의 국내 전문가 회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 회장단은 현대중공업(정성현 상무이사)과 DK산업(김보근 회장)·인트로메디(심한보 대표이사)가 참여했으며, 이중 인트로메디의 심한보 대표 이사가 협의회 대표를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개발 기획·산학연 공동참여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장비 등 관련 인프라 활용 ▲산학연 협력창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산업계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마이크로·나노 의료로봇산업 생태계 조

성 및 시장 선도 방안을 논의하고, 고급 전문인력 활용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심한보 협의회 대표는 “마이크로의료로봇 상용화기술 개발과 시장진출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출범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제1회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포럼’도 열린다. 포럼에는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권은희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국비 225억원, 광주 시비 50억원 등 총 340억원을 투입해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사업’(책임자 박중오·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는 광주 첨단 국가산업단지 내에 201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한편 한국의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박중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세계최초의 대장내시경로봇 개발(2001) 및 상용화(2005)와 캡슐내시경 개발(2003)을 주도했다. 세계최초 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2010)과 세계최초의 박테리아 나노로봇 개발(2013)에 성공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남도는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대(13만㎡)를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지역에는 전월주택 890세대와 상업용지,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관련 업체를 입주

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O)인 담양대숲마루(주)가 설립됐다. 담양대숲마루(주)는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 (주)유니온 벨리시티, (주)한양 등 민간투자자와 사업협약 등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광주정신’ 배우기

(사)광주학교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 인기... 서울 노원·은평구청 등 방문 잇따라

서울과 경기 등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향(義鄕)의 ‘광주 정신’을 배우기 위해 광주로 몰려들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학교(교장 송갑석)가 진행하는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인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과 은평구청 공무원 80명이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고, 내년에는 서울시청과 경기도 고양시청, 성남시청 등 경기도 주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무등산 역사길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무등산 역사길을 찾은 노원구와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이틀간 노랑계 물들이는 무등산 역사길을 걷고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면서 ‘의향’과 ‘예향’의 광주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첫날인 30일에는 ‘무등산 역사길’을 걸으며 의병장 김덕령 삼형제의 의로운 정신과 환병당의 주인 김윤제, 그의 제자였던 정철, 면양정의 주인 송순 등의 의향 광주를 이끌었던 조선 선비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뚜렷한 족적을 만났다. 트레킹 코스 가 총 6km로 길지 않은데다 역사해설과 국악공연까지 관람하면서



서울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30일 오후 광주 무등산에서 역사길 트레킹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광주학교 제공>

참여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31일에는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0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 미술 여행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밖에 무등산 보리밭과 송정리 떡갈비, 관소리 공연, 무등산 평촌마을 민박 등 광주의 맛과 멋을 두루 체험하며 광주에서의 뜻깊은 1박2일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노원구청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향 광주’가 80

년 5월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의병정신의 뿌리에 기인했다는 점도 알게 됐다”면서 “‘광주 정신’의 뿌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의병정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광주학교 송갑석 교장은 “의향 광주의 거대한 뿌리가 이곳에 닿아 있고, 광주정신의 진수 또한 이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과심의회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라, 써미지, 헤너겟 복합치료
② 아드름 레이저: 스쿠스빔,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③ 피 오 렘 이 저: 켈로맥스, 디오유즈메오
④ 피 부 미 백: 프라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듀얼,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락셀더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⑥ 모공: 변지치, 프락셀5종
⑦ 비만: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서울 서초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